

시큼하면서도 담백한 한국의 '국민주' 이야기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막걸리를 탐하다

이종호 지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술 가운데 하나가 막걸리다. 한번쯤 막걸리를 마셔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친근한 술이다. '막걸리'는 '막 걸렸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으며 '함부로 걸렸다'라는 뜻도 내포돼 있다.

"즉, '막되고 박한 술'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구 거른 술은 빛깔이 흐물처럼 희고 탁하다는 뜻에서 탁배기, 탁백이, 탁주배기, 탁바라라고도 불렀다."

우리나라의 전통 술을 말할 때 막걸리를 빼놓을 수 없다. 막걸리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 한민족의 술로 자리매김했다. 더욱이 선조들은 마시고 즐기 위한 용도뿐 아니라 제례의 중요한 재물로 인식했다.

시큼하면서 담백한 한국의 막걸리를 다룬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이종호 한국과학저술인협회 회장이 펴낸 '막걸리를 탐하다'

막걸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제조 방식 달라

1960년대 술 소비량의 70% 차지

탁배기·탁주배기라고도 불러 ... 한국의 양조장 24곳 소개도

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막걸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조선시대에는 술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었다. 왕의 식사를 관리하는 직책 가운데 '녹관(祿官)이 있었는데, 이들 중 술 담당을 '주인(酒人)이라 했다. 또한 고을에는 술을 잘 빚는 여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들을 '대모(大母) 또는 '주모(酒母)라 불렀다.

그런데 술은 왜 술로 불리게 됐을까?

"우리 조상들은 열(熱)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곡식과 누룩, 물이 섞여 끓어오르는 현상을 보고 술에 '수-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난데없이 물에서 불이 난다'는 생각에서였다. '수-불'이 이후 수-불>수-울>수-을 등을 거쳐 술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런 만도 한 것이 술에는 '물에 가든 불'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아마도 술을 마시면 열이 나고 뜨거워지는 것은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술의 역사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농경사회로 정착할 때부터 탁주를 만들어 마셨을 것으로 보는데, 고구려 시대에 막걸리가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위지 통이전은 고구려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장양(藏釀)을 잘한다'고 했다. 장양은 한국의 전통적인 발효식품 김치나 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주류(酒類) 학자들은 음식물을 저장할 때 술을 빚어 저장하는 방식을 일러 장양이라고 해석한다."

오랜 역사를 지닌 막걸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제조 방식이 달랐다. 목적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됐으며 기술 또한 대대로 전승됐다. 그 가운데 일제 강점기에는 막걸리 제조와 관련해 큰 변화를 맞게 된 시기다.

저자에 따르면 1910년 양조장 수는 15만 6000곳에 술 제조 면허를 받은 사람이 36만 6700명에 이르렀다. 그러다 조선총독부의 양조장 억제 정책으로 술 제조 면허자 수가 13만1700명에서 1930년경 4000명 정도로 축소됐다. 1932년에는 단 1명으로 줄었고, 1934년에는 제조 면허제 자체를 아예 폐지했다.

막걸리는 1960년대 '국민주' 대접을 받으며 술 소비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식량난을 이유로 원료를 쌀에서 밀가루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다 1977년 통일벼 증산이 시작되면서 쌀과 밀가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작금의 막걸리 부상은 지난 2005년부터 일본에서 불기 시작한 막걸리 열풍과 무관치 않다. 사람들이 전통 막걸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으며 과학계에서도 우수성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막걸리는 열량이 낮고 필수아미노산·유산균·유기산·비타민B가 풍부하다. 여기에 주박(지계미)에 포함된 영양 성분은 허기를 달래주고 변비 개선에 효과가 있다.

한편 책에는 한국의 양조장 24곳도 소개돼 있다. 물론 '막걸리 명소' 24곳이 한국의 막걸리를 모두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막걸리 등을 생산하는 양조장이 850곳(전통주류 분류되는 주종 포함) 이상이며 생산되는 막걸리 종류만도 1500여 종에 달하는 걸 보면 가히 춘추전국시대다. 저자는 "국민을 웃기고 울린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식"으로 풀어내며 막걸리의 맛과 멋을 흥겹게 풀어낸다. 책을 읽고 나면 적당한 막걸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약주라는 사실에 도달한다.

<북카라반·1만6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사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이갑수 지음 '편협의 완성'

"과학의 방법, 합리적인 체계를 좋아한다. 소설도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의도적으로 어떤 문장을 넣고, 어떤 원리에 따라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중략) 나는 문학을 공부하는 과학도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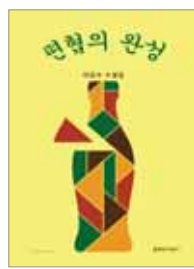
'문학과사회' 신인상으로 등단한 작가 이갑수가 2012년 '문학과사회'(여름호)에서 한 인터뷰다. 그의 말에서 보듯 관심사는 '인간 세계의 작동 원리'에 있다. 마치 수산화나트륨과 염산을 일대일로 섞으면 소금물이 되듯이, A의 상황에서 B의 특성을 가진 인물 C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서사를 이끌어간다.

이 작가의 첫 소설집 '편협의 완성'이 나왔다. 등단작 '편협의 완성'으로 "제목의 '편협'과 달리 매우 타자 지향적인 소설"이며 "계속 소설을 쓸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준다. 평을 받았던 작가가 7년 동안 다듬은 7편의 단편과 1편의 중편이 묶였다.

무엇보다 작가의 서사는 예상을 비껴가며 펼쳐진다. 표제작 '편협의 완성'에서는 코카콜라가 달에 광고판을 설치하고 'T.O.P'에서는 전쟁에 무림고수였던 사람이 재판관로 태어나 부업으로 유명 연예인을 경호한다.

7년 만에 묶은 첫 소설집이라고 해서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빠지는 작품 없이 고르게 자기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아마도 작가는 향후 자신이 써나가고자 하는 주제를 흔들림없이 그러나 유연한 자세로 다채롭게 내보낼 것이다.

이 작가는 "이제 나는 내가 읽고, 쓴 문장의 총량이 나의 재능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재능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라고 밝힌다.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미경 지음 '감세 국가의 함정'

국가의 부재는 고립된 개인들의 사회를 낳는다. 사회적 삶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개인은 각자도생해야 하며 리스크를 개인화해야 한다. 작금의 우리의 모습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의 자살률이라는 통계가 방증한다.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김미경 교수가 펴낸 '감세 국가의 함정'은 세금을 내고 걷는 행위를 들여다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묻는다.

국가가 재정을 조세에 의존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에 의존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근대에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걷기 시작했고, 시민의 납세와 전쟁 참여가 시민권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근대 국가를 '조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저자는 산업화 시기 한국은 사회로부터 조세 수취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본다. 조세 제정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를 '감세 국가'로 정의하는데 이는 조세 제정에 대한 의존성이 낮은 국가임을 보여준다. 세금도 적게 걷고 공적 지출도 적은 국가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재정을 조세에 의존하지 않았는가. 저자는 관방주의 지향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관방주의 지향이란 "불안정한 국제정치적 환경에서 국가의 생존 자체가 최대의 목적이며, 생존을 위한 군사적 능력, 경제발전, 기술 발전, 인적 자원의 증대에서 진보를 성취할 수 있는 국가의 수행 능력을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으로 삼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특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 시민의 약 절반은 소득세 면세자이다. 그만큼 세수 시반이 협소하다는 얘기다.



<후마니타스·2만2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정래·조재면 지음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

70대 중반의 '할아버지' 조정래 작가와 고등학교 2학년생 '손자' 조재면 군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말까지 약 1년여 동안 글로 써내려간 눈물 대화를 모은 책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가 출간됐다.

주목할 만한 사회 문제에 대해 손자가 먼저 논술문을 쓰면, 할아버지는 그 글을 읽고 교정할 곳을 꼼꼼히 표시한 후, 자신의 의견을 한 편의 글로 집필해 회답했다.

손자의 글에는 10대의 눈높이에서 본 사회의 모습이, 작가의 글에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몸소 체험한 이만이라도 쓸 수 있는 노련한 관점이 담겨 있다.

이 책은 ▲1장 단 하나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가 ▲2장 기업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가 ▲3장 청소년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가 ▲4장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과 그의 의미는 무엇인가 ▲5장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역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 총 5개 장으로 구성됐다.

각 장은 손자의 글, 할아버지의 글, 할아버지가 교정한 손자의 원고 교정본 순으로 정리됐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가습기 살균제(옥시) 사태와 기업 윤리', '성(性)을 넘어 평등한 인간으로', '남녀평등, 인간의 발전', '비판 문제를 통해 바라본 개인과 사회의 관계', '새로운 인류의 유행병, 비만'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해냄·1만2800원>
/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